세상 비관한 자살과 십자가 죽음

(누가복음 21장 29절~38절)

29.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3.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 비관한 자살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 비관한 자살과 십자가 죽음'
자살은 세상을 비관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에도 세상에 대한 비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비관할 때에 자살이 일어나지만 십자가의 죽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사뭇 끔찍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세상을 비관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들여다보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철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겉으로나마 "이 세상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 비관하는 상태가 가장 진실에 가깝게 체감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감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고 말할지라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것은 세상을 철저하게 비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상의 본질에 대한 가장 가까운 체감이라니 어떤 의미일까요? 자살충동이란 “더 이상은 세상 안에 머물 수 없다.”라고 느끼는 강렬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상의 본질에 대한 체감이야말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올바른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고 좋게 느껴진다면 신앙적으로 철이 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느끼는 좋음이란 세상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기분을 투사하는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좋은 곳이었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칼로 무 자르듯이 추호의 미련도 남기지 않으신 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머물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무와 사명 때문에 33년간 세상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와 사명이 끝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알고 체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바로 세상을 비관하여 자살충동을 느끼는 순간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남아서 잘해보겠다, 성공하겠다, 번영을 이루겠다고 하는 모든 바람들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마귀가 만들어낸 게임입니다. 게임중독자들이 삶을 잊어버리듯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있음의 느낌에만 찌든 사람은 하나님과 하늘의 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천국에 대한 느낌이 전무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관하는 것이 정답인 세상에서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고 게임입니다. 이 세상의 실제는 비관이기에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처럼 한순간도 세상에 있고 싶지 않은 마음 상태야말로 세상을 가장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공백의 마음을 한시적인 세상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고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여 잘살아보고자 시도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끝내 채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세상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비관하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이 자살입니다. 더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자연사라면 세상에 대한 비관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 죽는 것이 자살입니다. 다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따라서 마음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살과 십자가 죽음의 공통점은 세상에 대한 비관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마음에서 세상이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아깝고 애절하게 그립다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수긍하더라도 실질적인 십자가 생활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십자가 생활화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갖는 것과 같은 세상에 대한 비관이 동반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25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시적으로 표현된 말씀이기에 그저 아름답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체와 삶을 마르고 떨어질 풀과 꽃에 비유한 이 말씀에는 마치 자살충동과도 같은 세상에 대한 강렬한 비관이 담겨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세상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였고 8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헤밍웨이나 마릴린 먼로 같은 유명인들이 자살한 이유는 세상에 대한 비관 때문이었습니다. 자살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세상에 대해 비관하는 것만큼은 세상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체감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9~31절을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트면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는 것일까요? 이 일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

았던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하여 소요와 난리와 전쟁,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천체의 변화와 이상 징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앞서 17장 20~21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비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21장을 시작하며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과부는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번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생활에 대한 느낌이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활비의 전부였던 두 렙돈을 헌금으로 바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건에 이어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태평성대를 누릴만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비관을 통하여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접촉시키고 체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에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며 인구의 1/3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 예고하신 대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세의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멀리 중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있을까요? 전염병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우리나라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느끼셨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현상들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며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단지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하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별세의 과정을 시작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별세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칼로 무 자르듯이 세상을 잘라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떠나신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마음은 한시적인 세상에 묶여서는 안 되고 하늘을 향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별세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마음에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절여진 장아찌와 같은 상태가 된다면 마음은 하늘로 향할 수가 없기에 그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사랑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세의 예고를 통해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을 헐뜯기 위하여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세상을 좋아하여 붙어버린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별세의 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세상에 살아있는 채로 머물 수 없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한 비관이 너무 커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별세의 과정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만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 사건을 마주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고자 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과 행동이었으나 제자들은 세상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번영과 성공을 이루고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상이몽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헐뜯다시피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없는 사실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이 비관적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적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만 세상은 비관적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인간이 탁월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시한부로 지어진 장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영원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마음이 한시적인 세상에 갇혀있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기에 영원하지 못한 세상은 사람 앞에서 언제나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세상은 내가 놀 물이 아니고 내가 놀 바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마음이란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지으신 공간입니다.

마음이 이 조그만 지구 위에 붙어있는 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지음 받은 탁월한 마음을 채우기에는 지구에서의 삶은 비관적이고 사소할 뿐입니다. 영원한 마음은 한시적인 세상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가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려 하는 시도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영원한 마음의 크기를 염두에 두자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짜증 나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느낌을 받게 하시려고 종말을 언급하시며 소요와 전쟁과 난리와 재난 등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 채움에 있어서 세상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짜증 나서 자살충동이 일어날 정도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을 당했고, 북한에 의해 6.25전쟁을 겪었고, 휴전 후에도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관적 세상에 마음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거든 세상의 본질이 비관적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철저히 비관적인 장소임을 깨닫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간과 공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와 접촉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느낌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 소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천체의 변화, 난리, 재난 등은 세상에서 안정적 토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구에 정반대되는 현상들입니다.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동을 거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고 그 위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알고 체감하는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비관적 속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간과 공간의 바깥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비관적이라는 체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17장에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아홉 명의 유대인들이 나병을 저주로 여겼던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것을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곧 저주의 개념이 올바르게 확립되어야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계하여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홍수 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전의 상황이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극히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 말씀에 등장한 방탕함과 술취함이 등장했다면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꼭 방탕하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을 해야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또한 마음에 담았다는 점에서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똑같이 심판을 받을만한 일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원인을 방탕함과 술취함으로 제시하셨다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나는 방탕하지도 않고 술 취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극히 평범한 일상을 심판의 원인으로 제시하셨고, 소돔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짓는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또한 방탕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일상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세상을 담은 이상 그 또한 동일한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으셨던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곧 선민의 선민 됨이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렇게 된 이유는 단지 방탕함이나 술취함은 아니었습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은 생활의 염려와 묶여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부의 헌금 사건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느낌이 죽게 됩니다. 그 결과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가진 두 렙돈을 모두 헌금으로 드립니다. 생활의 염려란 이 세상의 있음을 느끼는 증거입니다.

세상 있음의 느낌이 커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둔해진다고 표현하십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의 있음을 강하게 느낍니다. 마음에서 자녀를 강하게 느끼는 동안 부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좌우되고 말과 행동은 자녀의 상태에 의해 지배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취한 상태가 된 것이고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이 생활의 염려와 연결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풍노도 속에서 잠을 주무신 사건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몸으로 느끼는 풍랑에 마음이 장악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살아남고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말과 행동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시는 동안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던 것처럼 풍랑은 마음에서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육체의 감각으로는 얼마든지 풍랑을 인식할 수 있고 의식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을 먼저 느낌으로 말미암아 깊은 잠을 주무실 정도로 풍랑에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이란 술에 취한 사람이 술기운에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주정을 부리는 것처럼 풍랑에 취해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뒷바라지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에 취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탕함과 술취함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술 먹고 도박하고 가출해야만 방탕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자녀의 있음을 우선적으로 느끼면서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느끼는 것이 이미 방탕함이고 술취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녀가 잘되는 것을 오히려 비관하게 됩니다.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비관이란 자녀가 잘되어도 내게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래대로라면 하루 빨리 마음이 자녀를 떠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떠나서 하나님과 천국의 있음을 느낄 때 비로소 자녀에 대한 올바른 태도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느낌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고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의 있음을 느낌으로부터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며 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돈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는 동안 돈에 의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좌우됩니다. 돈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나타납니다. 설령 "돈을 벌기 위해서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자."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정직함과 근면함이 돈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탕함이고 술취함인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는 바로 과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과부가 생활비를 헌금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돈에 대한 느낌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고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정신으로 돈과 관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까이 오다 못해 접촉이 일어나야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탈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느낌에 절여진 장아찌가 되어 있는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 별세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좋아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줄 아느냐?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등이 끊이지 않아서 도저히 마음을 붙이고 안정적으로 살 수가 없는 곳이다. 세상의 본질 자체는 비관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해보자면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대해 비관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가장 정확한 깨달음이고 체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비관은 이론적 앎이 아닌 마음의 체감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부인하는 과정을 세상에 대한 비관적 관점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비관한 사람의 자살충동 못지않게 세상에 대해 비관적 속성을 느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다 못해 마음에서 하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나를 지배하고, 그 느낌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해 발산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달리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마냥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갇혀 있는 곳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아도 배우자를 보아도 내 몸의 상태를 보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이지 세상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충동을 갖는 사람이 느끼는 것만큼 세상의 본질이 비관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칼로 무 자르듯이 단호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하다가 실패하고서야 자살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비관적임을 알았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보다도 세상에 대해 비관할 수 없다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하늘 그리움과 세상 비관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이 세상 바깥에 있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